

제42회
2025년 환경주일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그리스도인-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한 1:9, 12-13)



참여자단 : 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구세군한국군국,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루터회, 대한성공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문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
02-745-4943, www.kncc.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02-711-8905, www.greenchrist.org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 총회장 목회서신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국 69노회와 9,473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는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6월 첫째 주를 '환경주일'로 제정하였으며,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는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경건과 절제운동지침서', 2002년 제87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21세기환경선언문', 2007년 제92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환경선교지침서', 2009년 제94회 총회에서 '경제와 생태정의 위한 총회선언문', 2021년 제106회 총회에서 '기후 위기 대응 총회결의문', 2022년 제107회 총회에서 한국교회2050탄소중립 로드맵이 포함된 '기후위기대응지침'을 채택하고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며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 왔습니다.

2025년 6월 1일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 예배는 교회가 창조세계를 돌볼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회복에 참여하는 다짐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과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는 소유자가 아닌 청지기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21일 지표면온도가 평균 17.09도를 기록하며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 앞에서 교회는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이자 영적 위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창1:31)”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지키고 돌보라”(창2:15)는 청지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타락은 창조질서를 파괴하였고, 그 결과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보다 ‘나’의 유익만을 추구한 죄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하고,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파괴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주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멸종 위기의 생물을 보호하고, 산림과 바다를 되살리며,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하고 되살리는 삶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에베소서 5:8~9).” 2025년 환경주일 예배의 주제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그리스도인 – 절망에서 희망으로”입니다.

말씀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희망의 불빛을 밝혀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다시 서야 하며, 절망이 이 시대의 마지막 언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세계를 회복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교회가 이 땅 곳곳에 더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 6. 1.

총회장 김영걸 목사



환경주일 주제해설

빛이니 빛이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8-9)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14)

신익상 목사

한국교회환경연구소장, 성공회대학교 교수

어디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태양이 떠오릅니다. 밤이면 달과 별이 햇살의 강렬함을 아쉬워하며 반짝입니다. 번쩍이며 밤하늘을 가르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도시는 휘영청 화려하게 빛납니다. 발전소와 공장에 서도 쉼 없이 빛과 열기가 만들어지죠.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빛으로 가득한 것만 같습니다. 이뿐인가요?

햇살이 이슬에 닿을 때마다 풀잎 끝이 금빛으로 떨리고, 그 작은 떨림에 벌한 마리가 다가와 날개를 반짝입니다. 창가에 앉은 고양이는 햇살을 눈동자에 담고, 노인은 골목길을 걸으며 벽돌 사이로 스며든 따스한 빛을 느낍니다. 라오스의 시장통 어귀, 오랜 부부는 장바구니를 나눠 들며 마주 웃고,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은 조용히 햇살 속으로 스며듭니다. 나무는 나뭇잎 사이로 빛을 나누듯,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온기를 건네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이의 눈동자

속,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 너머 하늘, 꽃잎의 결 하나하나에까지 스며드는 빛—그 것은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평화의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빛의 그림자엔, 말 없는 비명이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꿀벌은 점점 사라지고, 들꽃은 돌아오지 않으며, 남극과 북극의 얼음은 해마다 더 깊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쓰레기로 질어지고, 바다거북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삼으며 알을 낳을 모래사장을 잃어갑니다. 기후가 상승하면서 잦아지는 대규모 산불은 이제 아메리카나 호주처럼 먼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산하에서도 불길은 일상을 집어삼킵니다. 의성과 안동에서 시작해서 경북의 산자락을 집어삼킨 대형 산불은 순식간에 숲과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매년 짧아지는 봄, 갈수록 건조해지는 대지, 강해진 바람이 만들어 낸 이 화마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태계가 새로운 형태로 안정을 찾고자 몸부림치며 내뿜는 탄식입니다.

탄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마존은 불에 타고, 극지는 녹고, 섬들은 침수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사라지는 곤충들, 무너지는 생태계 순환, 낯설어진 계절의 감각 속에서 우리는 익숙했던 삶의 조건들이 하나씩 무너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이 평온은, 어쩌면 점점 좁아져 가는 생명들의 피난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될 거라고 여겨온 일상의 풍경은, 사실 무너지는 생태계가 간신히 붙잡고 있는 마지막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 빛 이면의 어둠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이때, 우리는 봐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사랑한다면, 그 빛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기억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미 빛이라는 사실, 빛이기에 빛이어야 한다는 사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 “빛”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나 낭만의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은 고백이자 책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심어두신 잠재성과 가능성의 선언입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14)

이 말씀은 놀랍게도 명령이 아닙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정체성의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안의 가능성, 우리가 “되어야 할 존재”이며 “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부르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닌 자들, 이름 없이 살아가던 자들, 고통과 슬픔을 품고 살아가던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빛은 현재의 상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미약하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단지 위임의 무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미 가능성의 씨앗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빛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빛은 주어진 것이자, 일깨워야 할 가능성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8-9)

“이제는 빛이라”는 선언은 과거의 어둠과 단절된 새로운 존재 상태를 뜻할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소명의 동력을 드러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권면은 명령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가능성을 이미 두셨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아직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빛”이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이며 지금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 빛이어라.

우리는 이 부르심에서 어둠을 직시하고도 절망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도,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서며 변화의 가능성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며, 기후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회복해야 할 사명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맡기셨을 때, 그것은 지배가 아니라 돌봄의 사명, 관리의 소명이었지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숲을 베고, 강을 막고, 바다를 오염시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빛들을 인간이 파괴해 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청지기로 부르신 까닭은, 인간이 단지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그럴 수 있으면서도 그러지 못할까 염려되어 특별히 당부

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이 선언은 심판이 아니라 은총이며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고통받는 창조 세계와 함께 신음하는 청지기의 역할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연약한 자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무명의 여인 마리아, 말 더듬는 모세, 어부 출신의 제자들—그들 안에 잠재성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장 미약한 존재들을 통해 세상을 밝히십니다. 기후재난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가뭄에 시달리는 농민들, 산불로 삶을 잃은 이들, 기후난민, 생태 공동체의 실천가들—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들과 연대하며 빛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주일이 그 연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창조의 회복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하고, 설교는 생명의 신음에 응답하는 예언자적 목소리가 되어야 하며, 기도는 피조물 전체를 위한 중보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삶은 지역 생태와 연대하며 살아가는 빛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무분별한 소비 줄이기, 에너지 절약, 생태교육, 기후행동 참여. 이 모든 실천은 우리 안의 잠재성을 깨우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사회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빛인 세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등불은, 기후재난의 시대 속에서 더욱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지지 않는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밝고, 그 자체로 드러나며,

그 자체로 어둠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의 가능성을 심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위한 빛입니다.

빛이니, 빛이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다시 대답합니다.

“빛이니, 빛이어라.”





환경주일 공동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시고 생명을 부여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펼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여 우상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며,

이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온 생명이 기쁨을 누리는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욕망에 포로로 붙잡힌 삶,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거대한 자본의 탐욕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초래한 위기를 직시하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또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의 절망을 넘어 빛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경주일 설교문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그리스도인 - 절망에서 희망으로

에베소서 5:8-9

최형묵 목사

녹색교회네트워크 공동대표, 천안살림교회 담임목사

2025년 봄은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과연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겨울 내내 노심초사했던 마음을 떨치고 마침내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되돌아오는 봄이거늘 염려해야 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정치적 퇴행의 위기로 잔인한 시절을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는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모두 나서 절박하게 외쳤고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만나는 세계’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았고, 지금 우리는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한 힘찬 발걸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피 울음을 멈추고 새 역사를 일구어냈던 것처럼, 2025년 5월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 다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절망의 세계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인

들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믿음이 퇴조하고 현실에 적응하려는 유혹이 강력해진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되살려 그리스도인의 길을 일깨워줍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향한 심원한 믿음의 고백(4:6)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절박한 평화에 대한 희망(2:14-19)과 더불어 그 믿음과 희망을 간직한 이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생활률(4:17 이하)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그리스도인 됨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구체적인 생활률의 한 대목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5:8-9).

이 말씀은 하나의 대전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5:1).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을 본받는다(imitatio Dei)는 표현은 딱 여기서만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바울은 친서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신을 닮으라고는 했어도(고전 11:1; 4:16; 살전 1:6; 빌립 3:17 등) 하나님을 닮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에 유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마태 5:48),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누가 6:36)고 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 심화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통찰과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4:6). 하나님의 다양한 현존방식에 대한 믿음

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재하시며 모든 것을 관제지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권면은 다양한 하나님의 현존방식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적인 온 생명의 연결망 가운데, 구체적인 인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을 닮는 삶에 대한 인식으로 직결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닮는 삶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5:2).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성서의 신앙관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제의적인 용어들 때문에 언뜻 보기에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비로소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삶 자체로 산 제물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비워버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는 삶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소 의아합니다. 사랑의 삶을 역설하였다면 이어지는 내용은 그 사랑의 삶을 구체화하는 생활 규범이 제시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앞 대목(4:25-32)에서는 최소한 권장하는 미덕과 금지하는 패덕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금지하는 패덕의 목록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5:3),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5:4)입니다.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미덕과 패덕의 목록은 단어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지 딱 꼬집어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패덕의 목록이 그렇습니다. 권장되는 미덕은 일반 철학과 윤리 사상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 반해 패덕의 목록은 딱 꼬집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대략 그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패덕, 곧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은 각기 구별되는 어떤 패덕의 목록을 열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악에 빠트리는 근본적인 욕망의 문제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세계와 생명, 그리고 인간 자신을 파멸에 빠트리는 근본적 마음의 바탕을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잘못된 말들, 곧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잘못된 마음의 밑바탕에서 비롯되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기고 관계를 훼손하는 구체적 행태를 뜻합니다.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의 삶을 구체화하는 생활 규범을 말해야 하는 대목에서 적극적인 미덕을 말하지 않고 금기시해야 할 부정적인 패덕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밑바탕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의미를 지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으로 충분치 않고, 마음의 밑바탕, 태도의 근본 동기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자기 안에 도사린 마성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욕망이든 자기 욕심에 탐닉하거나, 직접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기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삶을 펼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행이 일종의 자기과시 행위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5:5).

우상숭배를 일삼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음행, 부정한 행위, 탐욕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그것이 우상 숭배 행위가 될까요? 그것은 자기 욕망에의 몰입이요 탐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이 절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자리할 틈도 없거니와 따라서 하나님이 자리할 틈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곧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5:8-9).

이 말씀은 그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저 일반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을 진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빛에 비추어 자기 삶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함으로써 주의 빛 가운데서 진리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말씀은 어둠과 빛을 대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어둠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 빛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빛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 금지되어야 할 패덕을 넘어 권장되어야 할 덕목이 비로소 제시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5:9). 사도 바울의 서신은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으로 구체적 덕목들을 말하고 있는데(갈라 5:22), ‘빛의 열매’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도 훨씬 실감 나는 표현입니다. 빛이 없으

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빛의 열매로서 선과 의와 진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구체적 덕목입니다.

그 열매는 구약성서 예언자 미가의 선포와 그대로 상응합니다.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사랑을 행하는 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미가 6:8) 바로 이 말씀에 그대로 상응합니다. 선과 의와 진실은,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며, 이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의 근본정신을 함축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사랑을 이루는 삶으로써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서신이 기록된 당대보다 오히려 오늘 우리 시대에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다른 종교의 제단 앞에서 예를 갖추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더욱 심각한 우상숭배는 물질에 대한 탐욕, 자기 욕망의 절대화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자기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마다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저마다의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적극적인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모종의 위험한 함정에 빠져 있는 오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실체가 저마다 소중하기에 서

로 존중하는 사회적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기보다는, 자기 세계에만 몰입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포로로 붙잡힌 삶, 그것은 사실상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거대한 자본의 탐욕에 의해 지배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꿈은 갖지 마라, 그저 주어진 세계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라. 그것이 행복이다.’ 그 잘못된 세계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자신과 다른 존재는 부정하며 배제합니까? 그것은 애초 자연을 대상으로만 여기고 인간만이 만물의 주인이라 여기는 근대적 세계관이 도달한 필연적 귀결입니다.

오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적 체제는 그 삶의 방식을 더욱 강화하고, 결국은 온 생명을 파멸의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일찍이 칼 폴라니는 그의 저작 『거대한 전환』에서 중요한 통찰을 하였습니다. 폴라니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사탄의 땃돌’로 비유하며, 그 해악을 지적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시장은 늘 존재해 왔지만 언제나 사회 안에서 한 기능을 담당했을 뿐 오늘날처럼 전 사회를 지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상품이 될 수 없는 자연(토지)과 인간(노동력)마저도 상품화하는 오늘의 시장경제는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인위적인 것으로, 인류가 최근세의 역사에서 경험한 현상일 뿐입니다. 과거 시장이 사회 안에 묻혀 한 기능을 한 것과 달리 거꾸로 시장이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는 현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통찰에 기대자면, 인간이 주인으로서 역할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마저 상품으로 갈아 넣으면서 얻는 결과는 결국 공멸일 뿐입니다. ‘인류세’, 아니 ‘자본세’로 불리는 오늘 세계의 실상입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와 그로부터 이어지는 재난은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그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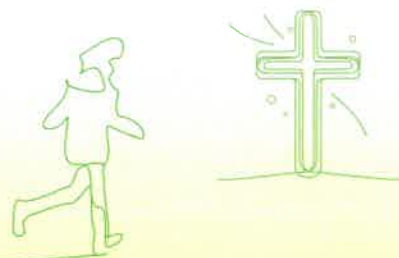
생활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잘못된 삶의 방식,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며, 이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요청입니다. 그것은 인간사회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온 생명이 기쁨을 누리는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 그 희망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고 생태적 정의가 파탄 난 어둠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과 삶의 방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거꾸로 그로부터 돌이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이어진 겨울과 봄 사이에 우리는 놀라운 ‘빛의 혁명’에 함께하였습니다. 그 ‘빛의 혁명’이 온 세계를 환히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사회적 정의와 생태적 정의를 이루는 위대한 희망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환경주일 어린이 기도문

김지영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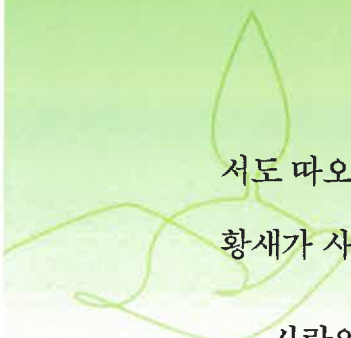
예담교회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온갖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온갖 바다의 생물들과 새들을 만드시고, 땅의 짐승들과 가축들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뒤, 온갖 축복을 주시며 잘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축복해 주신 저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잘 다스리고 돌보라 말씀하신 이 세상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저희 욕심 때문에 지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많은 동물 친구들, 식물 친구들이 아파하고 이 땅에서 고통받게 했습니다.

봄에는 산불이 자주 나고, 여름은 해마다 더 더워지고 있어요. 가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눈이 점점 안 오고 있어요. 멀리 남극에는 빙하가 매일같이 녹고 있고, 그래서 바닷물이 많아지고 있대요. 섬에 사는 사람들이 살 땅을 잃어버리고, 더위와 전염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우리 나라에



서도 따오기, 뜸부기, 맹꽁이, 반달가슴곰, 수달, 여우, 올빼미, 장수하늘소, 표범,
황새가 사라지고 있대요.

사랑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슬프실까요.

저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들을 완전히 바꾸기 원해요.

이 어지럽고 어둡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섬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파하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경주일 어린이 설교문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8-9)

김지영 목사

예담교회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은 ‘환경 주일’이에요.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고, 우리 교회는 오늘을 환경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환경 주일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주일이에요. 그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지금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주일이에요. 온 생명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우리들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로 약속하는 주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세요. 창세기에도 처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하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고 했어요. 땅이 아무 것도 없이 텅 비어 있고, 온 세상이 너무너무 캄캄해서 완전히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니 모든 세상이 환해졌어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빛인데 그 빛을 안 보이게 숨겨두거나 가려두면 아무것도 밝게 비출 수가 없겠지요? 빛은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그 빛이 환히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도 잘 볼 수 있고, 그 빛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하고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그동안 빛의 자녀들처럼 지내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음식 아까운 줄도 모르고, 물이 귀한 줄도 모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한 줄도 모르고, 많이 사고, 많이 남기고, 많이 버리기도 했어요. 내가 가진 것들을 친구들과 나누지 않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잘 돌보라고 부탁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함부로 대했어요.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것을 나 몰라라 하며 더울 때는 열심히 에어컨을 세게 틀기도 하고, 추울 때는 히터 온도를 마구 높이기도 했어요. 쓰지 않는 불을 켜두기도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곳도 차로 가기도 했어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더운 거, 내가 추운 거, 내가 힘든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아파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세요. 이 말씀에 따라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착함”은 나만을 위한 마음이 아니에요.

나와 가족과 친구와 교회와 온 세상을 위한 마음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모두가 함께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신 곳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손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 친구도, 멀리 몽골에 있는 친구들도, 기후난민이 된 사람들도 생각하며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꽃들과 나무들과 새들과 물고기들과 동물들과 곤충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미안해하는 마음이에요.

“의로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천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이에요. 더러워지고 파괴된 땅과 하늘과 공기와 생명들을 위해 내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빛의 자녀들처럼!”이지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물도, 전기도, 음식도 함부로 사용하고 낭비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지구를 생각하며 물도 아끼고, 전기와 에너지도 아끼고, 음식도 먹을 만큼만 먹고 남기지 않아야겠어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곳곳에 식물들도 많이 심어야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진실함”으로 해야 해요.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마음과 행동이 똑같은 모습이 진실함이에요. 지구를 아끼겠다고 약속했다면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면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해요.

나 한 사람이 빛의 자녀라면 그 빛이 약해서 힘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빛의 자녀임을 깨닫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나부터 시작해요. 우리부터 시작해요. 빛의 자녀답게! 오늘부터 시작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기로 약속해요.



환경주일 청소년 기도문

박창규 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새사랑교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당신은 하늘과 땅, 바다와 산,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며 감탄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탄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푸른 하늘을,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의 해안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탄성이 사라진 세상에는 탄식만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 탄식이 절규로 바뀌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들이 일어서게 하소서.

피조물의 탄식이 탄성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독 청소년들이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경주일 청소년 설교문

빛나는 삶이 아닌 비추는 삶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8-9)

박창규 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새사랑교회

눈이 흔했던 지난 겨울

지난 겨울은 눈이 참 흔했습니다. 특히 설 연휴, 전국적으로 내린 큰 눈이 기억이 또렷합니다. 기상청 자료만 봐도 이런 기분은 사실로 입증됩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평균기온은 예년보다 0.7도 높았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31.8% 적었으나, 눈 일수는 9.7일로 평년보다 3.5일 많았고, 적설량도 14.5cm로 평년보다 4cm나 많았다고 합니다.¹⁾

겨울철에는 큰 눈이 내리더니, 봄 새싹이 한참 움트던 지난 3월 말에는 경북 지역 곳곳을 덮친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의성, 안동, 산청, 영양뿐 아니라 해안지역인 영덕에서까지 많은 분이 목숨을 잃고 또 숲이 파괴되는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겨울철의 큰 눈과 봄철의 대형산불은 모두 기후위기의 단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겨울철 동북아시아 지역의 기후 변동성이 증폭되고 이후 급격한

1) <https://www.kma.go.kr/kma/news/press.jsp?mode=view&num=1194458>

기온 상승은 모두 유사 엘니뇨 현상(El Nino Event)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불확실한 미래의 재앙이 아니라 명백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텔보 관장으로 잘 알려진 이정모가 쓴 『찬란한 멸종』이란 책이 있습니다. 2150년 기후위기로 멸종한 인류의 역사를 홀로 남게 된 AI(인공지능)가 뒤돌아보는 내용인데요, 그중 한 대목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충분한 기술이 있었다. 그들이 멸종하기 130년 전에도 기후변화를 막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퍼센트가 있었으며 이 기술을 사회에 적용하는 데 충분한 돈도 있었다. 또 많은 사람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절실하지는 않았다. 누군가가 해결하리라 믿었다.”²⁾

이렇듯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노력도 허사인, 절망적 상황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보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자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후위기를 대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는 점점 그 징후와 현상이 심각해져만 가는 기후위기 시대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 나라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는 자들이 이 일에 더욱 열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부름받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문제에 무관심하며, 심지어 무책임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현실에 등을 돌리거나 일상적 삶의 경험에 눈을 감는 신앙은,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³⁾ 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기만과 무책임일 뿐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9절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 부릅니다. 베네딕토 수도회의 오랜 격언 중에는 ‘빛나는 삶이 아닌 비추는 삶을’이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 주변을 밝힌다는 점에서 희생적(=착함)이며, 또한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보편적(=의로움)입니다. 더 나아가 빛은 모든 색의 원천으로, 각각의 존재가 가진 고유한 색, 개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진실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빛의 자녀들의 세가지 특징,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가리키는 바가 아닐까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 시대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으로 시대의 도전과 요청에 응전하고 응답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책임을 다하는 녹색교회와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푸르고 푸른 기독 청소년(靑少年)들이 피조물의 “탄식”을 “탄성”으로 변화시키는, 희망과 가능성의 푸른 빛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 마 27:24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환경주일 예배 예식서

입례 |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 예배부름

인도자 | 주 안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 가운데로 나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빛을 살아내길 기뻐하며 창조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같이 | 아멘.

• 경배찬송 | 하나님 창조하신

곳기리

1. 하 나 님 창 - 조 하 신 꼭 른 땅 과 밭 은 공 기 -
2. 하 나 님 주 - 신 명 령 자 - 연 과 하 나 되 라 -

조 화 로 운 이 - 세 계 만 물 들 아 찬 양 하 라 -
상 처 입 은 산 과 비 다 만 물 들 의 신 음 소 리 -

하 나 님 이 주 신 이 땅 아 름 답 게 가 꾸 어 가 세

하 나 님 이 주 신 이 땅 귀 하 게 가 꾸 어 가 세 -

• 성서교독 | 시편 37:1-6

인도자 |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회 중 |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인도자 |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회 중 |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인도자 |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회 중 |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인도자 |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회 중 |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함께 |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 영광송 | 주님은 빛이시니

주 님 은 빛 이 시 니 내 어 둠 환 히 밝 히 소 서 주 여 주
C'est toi ma lam-pe, Sei-gneur. Mon Dieu é-clai-re ma té-nè-bre. Sei-gneur, mon

Gm C F Dm Bb6 A Dm A Dm

여 어 둠 을 밝 히 소 서 주 여 주 - 여 어 둠 을 밝 히 소 서 주
Dieu. é-clai-re ma té-nè-bre. Sei-gneur, mon— Dieu. é-clai-re ma té-nè-bre. C'est

Gm C F Bb A D Gm C F Gm A Dm

말씀 |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 성서봉독 | 에베소서 5:8-9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 말씀송 _ 다함께



• 말씀 나눔 | 절망에서 희망으로

결단 | 빛의 열매는

• 결단기도 | 자연신경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자연이 하나님의 몸과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자연은 사랑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평화, 자유와 해방의 영이신 성령을 믿으며

자연은 창조질서에 의하여 보전되고 유지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자연 안에 충만함을 믿으며,

자연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생명 살림의 터전임을 믿으며
 평화로운 세상을 여는 자연의 청지기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연의 힘과 사람의 신실한 노동을 통해서
 자연이 새롭게 창조되어감을 믿습니다.
 우리는 풍요와 편리를 따르는 것이 자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연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붕괴가 인류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엄숙히 받아들입니다.
 리는 자연을 착취하고 사지로 내 몰았던 행태를 참회하고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녹색은총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열고 생명을 살리는 환경선교에 매진하겠습니다. 아멘.

● 결단찬송 |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뜻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는 그 뒤를 - 따르게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
 주의 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

보냄 |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그리스도인

• 파송사

인도자 |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녹색은총을 힘입어 녹색그리스도인으로서 생태정의를 일구는 이 귀한 사역에 앞장서십시오.

다함께 | 우리는 창조세계의 청지기이며 세상에서 주님의 빛입니다. 창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섬기며 생태정의를 일구어 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